1억원대 공금을 내돈 쓰듯…나사 풀린 축구협회

피부미용실까지 법카로…축구협 간부들 이게 뭡니까

조중연·이회택·김주성·황보관 등 11명 입건
유흥주점·골프장·노래방 등 유흥비로 펑펑
관행적으로 사용…축구인들 "서글프고 참담"

조중연 이회택 김주성 황보관

대한축구협회가 뒤숭숭하다. 끊이질 않는 비리와 비위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월 14일 "조중연(71) 전 협회장, 이회택(71) 전 부회장, 김주성(51) 전 사무총장, 황보관(52) 전 기술위원장 등 협회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1억원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배임이다. 또 다른 협회 직원 이모(39) 씨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을 비롯한 11명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약 220여 회에 걸쳐 모두 1억167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조 전 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3차례나 각종 국제축구대회에 부인과 동행하면서 항공료 등 약 3000만원을 공금으로 처리했다. 법인카드로 지인들과의 골프비용 약 1400만원도 결재했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등 10명은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133차례 출입하면서 약 5200만원을 처리했고, 유흥주점(30회)에서 2300만원, 노래방(11회)에서 167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는 피부미용실에서 26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자 모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기혐의로 입건된 이씨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이혼사실을 숨긴 채 매월 부인 몫으로 정해진 가족수당(15만원)을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는 지난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시점은 2016년 12월. 당시 문체부는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비위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협회에 전달하는 한편, 수사의뢰조치를 했다.

문체부는 조 전 회장이 부인과 동반출장을 떠나 3000만원을 공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 때 공개모집 규정을 어기고 6명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협회는 2012년 1월에도 회계담당 직원이 법인카드 7000만원과 환급 포인트 2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해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협회는 2012년 4월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이번에 입건된 11명은 지침공표 이후에도 46차례에 걸쳐 204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협회 집행부가 일회성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공휴일에도 법인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 사례를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뉴스를 전해들은 축구인들은 "서글프고 참담하다. 전임 집행부의 비위로 지금의 직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대표팀 감독은 부임 2경기만에 경질을 요구하는 비난에 직면했고, 선수들은 공로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 내일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순간에 과거의 족쇄에 묶여 이도저도 못하는 모양새"라고 씁쓸해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옆차기의 정석? 라이프치히의 윌리 오반(오른쪽)이 9월 14일(한국시간)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AS모나코와의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1차전에서 모나코의 알마미 트라오레(왼쪽)와 볼을 다투고 있다. 라이프치히의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경기다. 두 팀은 1-1로 비겼다. 라이프치히(독일) | AP뉴시스

제주 마그노

이적 불발 마그노, 건강 문제?

UAE 알 샤르자 메디컬테스트 불합격
제주 "무릎쪽 이상…경기엔 지장 없다"

아랍에미리트(UAE) 알 샤르자 이적이 불발된 마그노(29)가 원 소속팀 제주유나이티드에 복귀했다. 알 샤르자 구단은 9월 11일 마그노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불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그노는 이적이 불발됐다.

메디컬테스트는 선수 이적 과정의 최종관문이다. 구단에서 필요성을 느껴 영입에 나선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마그노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알 샤르자 측은 마그노의 불합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마그노는 13일 제주유나이티드에 복귀해 14일 팀 훈련에 합류했다. 알 샤르자의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마그노가 어떻게 제주에서는 뛸 수 있을까. 심지어 그는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8라운드 FC서울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80분을 아무 이상 없이 소화했다.

선수의 메디컬테스트는 구단에서 진행한다. 통과기준 역시 구단마다 다르다. 중동 팀들의 경우 높은 기온의 환경 탓에 메디컬테스트가 까다롭다고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국내 구단들이 허투루 메디컬테스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 관계자는 "마그노가 무릎 쪽에 이상이 있어서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판단기준의 문제로 안다. 산토스(수원삼성)가 우리 팀에서 뛸 때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의학적으로는 뛸 수 없지만, 실제로 경기를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지금도 잘 뛰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마그노가 올 시즌 무릎이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이 관계자는 "X레이나 MRI 촬영을 하면 과거 큰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은 지금 회복이 다 되었더라도 흔적이 모두 찍혀 나온다. 진단서 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구단주치의, 트레이너들과 상의를 하고 경기를 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한다. 절대 메디컬테스트를 대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돈을 주고 데려오는 선수인데, 아픈 선수를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제주는 9월 17일 홈에서 울산현대와 2위 자리를 놓고 중요한 경기를 한다.

마그노는 출전이 가능하다. 제주 관계자는 "이적이 불발되어 돌아온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위축이 된 부분도 있다. 팀 훈련을 통해 감독님이 마그노의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농구

이상범 신임감독 "동부산성 이미지 지우고 공격농구 이식"

프로농구 일본 전훈캠프에 가다 6 원주 동부

윤호영 부상·허웅 입대…리빌딩 적기
무한경쟁 통해 비주전 경쟁력도 증대

원주 동부의 새로운 사령탑 이상범(48) 감독은 "요즘 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특히 연습경기를 하는 날이면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작전지시도 간단하게만 한다.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선수들이 못해도 화내는 법이 없단다. 물론 이 감독이 지도스타일을 아예 바꾼 건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팀을 지휘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 감독은 "우리 팀 선수 대부분은 내가 오기 이전까지 출전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실수를 하면 벤치를 먼저 본다. 질책을 받거나 교체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김없이 서두르면서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 팀 선수들의 이러한 특성상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지금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있다.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신감이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의 말대로 동부는 리빌딩을 시작한 팀이다. 오랜 기간 동부를 이끌었던 김주성(38)은 2016~2017시즌부터 확실히 하락세다. 김주성에 이어 팀을 지탱했던 윤호영(33)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여전히 재활 중이다. 주전으로 활약했던 허웅(24)은 군에 입대했다. 지난해 주전 선수 3명이 한꺼번에 이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이 감독은 그나마 경기 경험이 있는 두경민(26)을 중심으로 팀을 재건하고 있다.

2016~2017시즌 뿐 아니라 이번 시즌에도 예전과 비교해 전력이 하락한 동부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팀 훈련을 시작했다. 선수들에게 공격과 수비 모두 기본을 강조하며 꾸준하게 경기에 뛸 기량을 갖추도록 훈련에 집중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출전기회에 목말랐던 선수들이 국내에서 치른 연습경기에서 전보다 나아진 활약을 펼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여전히 의문부호를 갖고 있다.

연습 경기와 실전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다.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다. 관중들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제 리그에서도 연습경기 때와 같은 모습이 나오면 팀이 자리 잡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 실전에서도 선수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며 우리만의 농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시즌 초반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가 말하는 우리만의 농구는 기존 동부의 색깔을 탈피하는 것이다. '동부 산성'으로 불렸던 수비 농구 대신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팀에 이식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틀을 정하진 않았다. 그 이유도 선수들을 생각해서다. "빠른 농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선수들이 그 틀에 갇힐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이 능력치가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제 막 뭔가를 해보려는 이들이다. 틀을 짜면 오히려 선수들이 더 어려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을 정하지 않는다. 대신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감독은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춰 팀을 지도하고 있다.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보다는 선수들이 뛰는데 최대한 불편을 줄여 각자의 잠재됐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게 끔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도 정하지 않았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잘 하다보면 성적은 자연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모든 경기에 집중하게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면서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렸다.

동부는 국내훈련을 마치고 9월 14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치른 연습경기에서는 12명의 선수에게 고루 기회를 줬다. 훈련의 성과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일본 전훈부터는 조금씩 틀을 짜 나갈 생각이다. 이 감독은 "여기서 조금씩 주전과 시스맨을 나눠보려 한다. 그렇다고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건 아니다. 식스맨도 전훈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주전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선수간의 경쟁도 이끌어내 동부를 다시 강팀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각자가 아름다운 작은 꽃이라도 피우면 성공이라고 본다. 그런 날이 꼭 올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제자들을 응원했다.

나고야(일본)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원주동부 이상범 신임 감독이 선수단 전지훈련이 진행 중인 일본 나고야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나 자신들만의 농구를 만들기 위한 구성을 설명했다.
나고야(일본) | 최용석 기자